8개월을 위해 10년을 쌓은 사람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미국 보스턴의 한 억만장자는 생전에 세계 각지에서 최고급 대리석을 모아 10년 동안 초호화 별장을 지었다. 그러나 완공 후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독신이었던 그는 별장을 남길 가족조차 없었다. 결국 그 집은 주정부 소유가 되었고,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를 관광객들에게 공개했다.

사람들은 화려한 건축물에 감탄했지만, 사연을 듣고 나올 때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2m도 안 되는 몸을 겨우 8개월 모셔 두려고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구나."

이 이야기는 집착의 허망함을 잘 보여준다. 인간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결국은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해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유리병과 땅콩만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한다. 입구가 좁고 몸통이 큰 병 속에 땅콩을 넣어두면 원숭이는 손을 넣어 한 움큼 쥔다. 그러나 손을 빼려면 땅콩을 놓아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놓질 못하는 것이다. 그 순간 원주민들이 달려들면 원숭이는 결국 잡히고 만다.

우리 중생도 이와 같다. 작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 스스로를 옭아매고, 결국은 고통에 사로잡힌다. 불교는 이를 집착이라 부른다. 집착은 곧 고통의 뿌리이다.

연예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디션에 응시한 친구를 따라갔다가 담당 PD의 눈에 띄어 발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심의 힘이다. 뭘 바라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바라는 마음 비우면 비로소 공덕 성취
감사·무심의 삶이 지혜 이끄는 수행 돼
제행무상 품고 '있을 때 잘하는' 불자 되길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실행론〉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구하는 마음은 있으나 자기 심중의 허물을 고치지 못하고, 오직 욕심에 사로잡혀 서원만 충족하려 한다면 어찌 좋은 공덕을 바라겠는가."

공덕은 무심으로 행할 때 비로소 성취된다.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오히려 공덕은 줄어든다.

몇 해 전 배우 황정민 씨는 영화대상 주연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냥 스태프들이 차려 준 진수성찬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겸손과 감사의 본질을 드러낸다. 나 혼자 이룬 성취는 없다. 수많은 인연과 노고가 모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불교적 수행은 바로 이러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지혜 있는 현자들은 말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한 순간, 무탈하게 지나온 한 해, 잠든 가족의 얼굴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의 대상이다.

불교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는' 삶이 중요하다. 감사와 무심으로 살아갈 때, 일상은 곧 수행의 장이 되고, 그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잘된 일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다. 나날이 감사하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행무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을 때 잘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다.

선거, 정치에 참여할 유일한 통로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벚꽃을 시작으로 봄꽃이 화사하게 피나 싶더니 금세 초여름 날씨가 됐다. 그러다 4월 중순에 난데없는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겨울옷을 모두 세탁해서 넣어둔 터라 당혹스러웠다. 이번 한파는 우리나라 상공 5㎞ 부근으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 유입이 원인이었다.

원인을 더 들여다보면 북극권의 기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2~3배 높아지면서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한파특보는 2005년 한파특보 DB가 마련된 이후 가장 늦은 한파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16일에 가장 이른 한파주의보가 있었다. 가장 이르고 늦은 한파특보의 기록은 조만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우리 몸에 이상증세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사다. 봄기운이 완연해서 꽃봉오리를 활짝 피웠다가 한파를 겪으며 냉해를 심하게 입게 되면 그해 농사는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가을 수확을 앞둔 시기에 이른 한파특보 역시 수확량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결국 기후는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후 문제를 식탁의 문제로 잘 연결 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가는 자동차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늘날 농업은 석유 기반 시스템이다. 트랙터, 콤바인, 관개 펌프 등은 대부분 디젤을 사용하고 있어 석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필름, 멀칭 필름에 이르기까지 농사에 석유를 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농업이 석유 소비로 빚어진 기후 위기로 또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는 끝없는 악순환의 루프다.

석유 의존 농업 기후 위기 부메랑 맞아
온실가스 규제 유럽, 야간 조명 4% 감소
선거 전 환경 위기 막을 탄소 공약 살펴야

얼마 전 실제로 지구의 밤이 해마다 2%씩 밝아지고 있다는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미국 코네티컷대와 독일의 보훔루르대의 공동 연구진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 기간에 16%나 밝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해마다 평균 2%씩 밝아진다는 통계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모든 나라가 밝아진 게 아니다. 중국, 인도 등 경제 성장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나라의 경우는 해마다 더 밝아지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유럽의 야간 조명은 4%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자정 이후 가로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친 결과 33%나 감소했다. 에너지전환과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야간 조명 감소율이 22%나 됐다.

우리나라도 차량 2부제 시행만으로는 미흡하다. 영업이 끝난 가게며 빌딩은 낮과 밤의 구분 없이 환하게 전등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이 우리보다 가난해서 야간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정책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선거는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후보들의 공약에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바로 그런 행동이 우리의 일상을 가장 늦은 한파와 가장 이른 한파의 기록 경신을 막아줄 유일한 대안이라 믿기에.

社 說

'제2건학' 변화의 씨앗에서 도약의 길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2021년 '제2건학'이라는 원대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학교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며 건학이념 구현을 실질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 개선이나 사업 확대를 넘어, 불교정신이 대학 공동체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건학위원회 출범 당시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종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불교적 가치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자성, 그리고 대학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동국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선언은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세워진 이정표였다. 그리고 지난 5년은 선언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실천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시간이었다.

교육·전법 등 성장세…건학이념 구현
불교정신 일상화, 한국불교 동력 되길

가장 괄목할 성과는 '대학 전법'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불과 5년 전 160여 명에 불과했던 불교동아리 회원이 이제 8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한 사실은 상징적이다. 또 장학금을 매개로 사찰과 학생을 잇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과 수천 명의 학생이 환희심 속에 계를 받는 '영캠프'는 신행과 복지, 포교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종교와 교육이 분리된 영역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두 영역이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캠퍼스 문화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합장 인사와 공양 기도, 팔정도 참배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정이 연등으로 장엄되는 풍경은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요된 제도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자발적으로 변화했기에 가능한 결과다. 불교가 종교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건학위원회는 교육과 의료, 글로벌 등 전 분야에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문화유산학과와 한국음악과 등 건학이념을 반영한 학과 신설과 교과목의 표준화는 불교적 가치가 학문의 토대 속에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하 9개 학교 법당을 일신해 청소년 포교의 기반을 다진 것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시선은 미래로 향한다. 지난 5년이 변화의 동력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변화가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청년 불자들이 일시적인 흥미를 넘어,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때 '제2건학'의 진정한 가치는 완성될 것이다.

동국대의 역사는 선지식들의 원력으로 일궈온 교육불사의 기록이다. '제2건학'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지만, 지난 5년의 성과는 그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동국대가 이 흐름을 더욱 성숙하게 이어가며 대학을 넘어 사회와 세계로 불교정신을 확산해 나갈 때 '동국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대원력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사)대한불교금강종

圓 寂

대한불교금강종 제2세 종정 예하 무학당 대종사께서 입적하셨습니다. 2026년 4월 7일 오전 10시에 입적하셨으며, 사리 84과가 수습되었습니다.

5월 25일 오후2시 대구 인각사에서 **49재를 회향**하오니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대한불교금강종 총무원장 법산 스님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대승종은 1988년 5월 28일, 도암선사께서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 각행원만(覺行圓滿)을 근본교리로 창종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본 종단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대승보살행을 실천합니다.

종조는 태고 보우국사이며, 소의경전은 『법화경』·『금강경』·『아미타경』·『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경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전국에 350여 사찰과 750여 명의 승려 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수행과 중생 교화에 뜻을 둔 신심 깊은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스님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대한불교대승종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5월 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